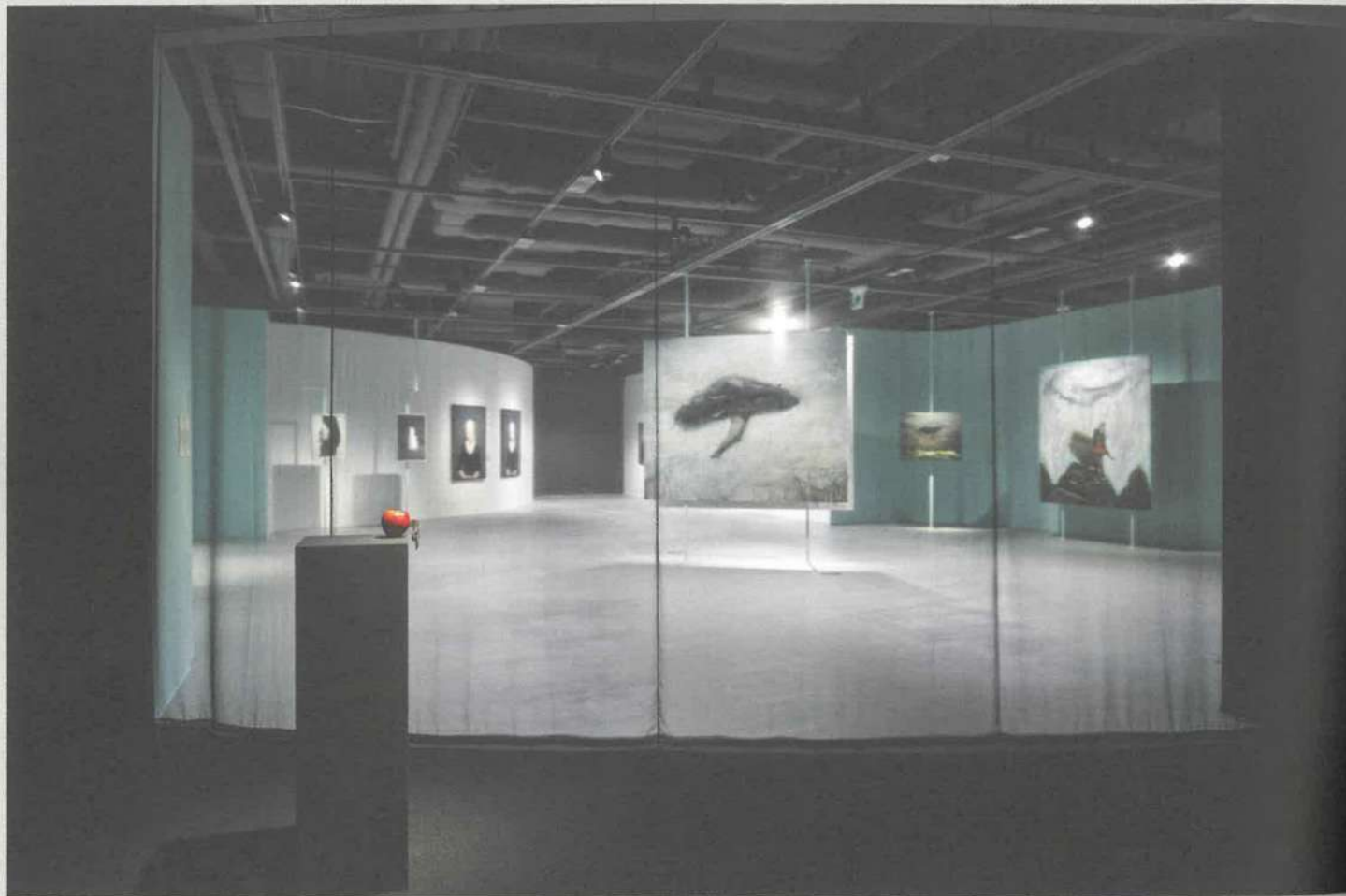


《유평하는 세계: Bed, Bath, Bus》

세화미술관 4.17~6.29

권정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동시대 초현실주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현실과 허구의 뒤섞임은 미술에 익숙한 주제다.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동원하는 초현실주의부터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상상력을 펼치는 SF적 작품들, 디지털 시대에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을 다루는 탈진실 주제의 작품들까지, 오늘날 현실과 허구, 실재와 가상의 혼재를 다루는 작품과 전시는 적지 않다.

세화미술관의 기획전 《유평하는 세계: Bed, Bath, Bus》는 그중에서도 초현실주의의 계보를 이어 환상과 현실의 혼재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는 부제가 암시하듯이 잠을 청하거나, 몸을 씻거나, 이동하는 등의 일상 속에서 문득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생각과 감각을 다룬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가상성이나 SF적 허구를 다루는 전시와는 달리, 《유평하는 세계》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환상'이 일상과 뒤섞인 상황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정 주제나 매체에 한정하기보다는, 전시 서문에서 언급하듯 "현실과 비현실의 혼재"라는 표현 아래 넓고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몇몇 작품은 주제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론 측면에서도 초현실주의의 전통적인 기법들을 동시대적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것이 보였다. 김명범의 열쇠가 꽂힌 사과 〈키〉(2018), 해바라기가 핀 전구 〈무제〉(2009), 나무가 자라는 양초 〈무제〉(2009) 같은 작품은 일상적 사물을 낯설게 조합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함을 일으키지 못할 법도 한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해낸 기이한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평범한 사물을 이용한 고전적인 초현실주의 기법의 조각 작품은 오히려 낯설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김명범이 조각으로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왼쪽 페이지 김명범 <키>(사진 왼쪽)
 혼합재료 가변 크기 2018
 아래 장성은 <불가능한 풍경 10>(사진
 오른쪽)
 <유영하는 세계> 세화미술관 전시 전경
 2025 사진 양이언
 제공: 세화미술관

시도했다면, 안지산은 회화로 초현실주의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보여 준다. 두 다리만 내놓은 채 먹구름을 타고 어두운 하늘을 유영하는 인물 <유영>(2024), 무지개가 뜰어져 나간 채 텅 빈 방 <무지개와 부서진 의자>(2018), 에어팟과 에너지 음료, 일렉트릭 기타 같은 동시대적 사물을 지닌 채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 <에너지 맨>(2024), <비를 태워라 돌산에서>(2024) 등 일상적 인물과 사물을 기묘한 상황에 배치하면서 당장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전조 상황을 연출한다. 특히 동시대 사물과 복장은 인물에 현실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비일상적 상황과 결합하여 생경함을 증폭시킨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환상, 공상, 꿈 같은 비현실적 요소가 다양하게 변주된다. 장성은과 심래정의 작품은 평범한 일상에 집중하여, 익숙함에서 마주하는 낯설고 기이한 감각에 주목한다. 장성은은 리본, 파도, 구름, 케이크로 이어지는 무의식적 흐름을 연캐니한(묘한) 사진 이미지로 연결하며, 생일이라는 행복한 기념일에 깃든 기이한 불안을 환기한다. 심래정의 설치와 평면 작품은 일상의 몽상과 내면의 불안이 뒤섞인 상황을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태도로 풀어낸다. 한편 로르 프루보와 파이프 뱅스의 작품에서는 동물, 식물과 환상적으로 결합하는 상상에 기반하여 세계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유영하는 세계>는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낸다. 안과 밖이 동일하여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문 김명범 <벽 속의 벽>(2025)처럼 그럴듯하게 구성된 세계 안의 비논리와 비이성의 작은 틈을 환상적으로 부풀린다.

오늘날 펼쳐지는 이 환상적 세계의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도출한다. 초현실주의가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과 이성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들 작품이 오늘날 환상과 꿈을 호출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전시에서 문제시하는 작품의 상황은 무엇이며, 이들 작품은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 결과로서 작품들이 환상을 소환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몇몇 작품에서 언뜻 보인다. 로르 프루보의 <매주 일요일, 할머니>(2022)에서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이면 '인간 새'로 변신하여 하늘을 난다. 나체로 자연을 누비는 할머니는 모든 속박을 벗어던진 것처럼 자유롭게 느껴지는데, 이 환상적 풍경이 수많은 할머니가 현실에서 마주했을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반작용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프루보가 아주 오래된 사회적 억압을 다룬다면, 파이프 뱅스의 회화 <연못이 있는 풍경>(2025)과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2023)는 미술사의 오래된 도상을 차용하면서 이를 현재적 문제로 끌고 온다. 뱅스는 누드화의 전형적인 도상을 빌려오되, 인간이 아닌 식물이나 과일, 혹은 상상의 생명체로 이를 그린다. 식물을 닮았으나 식물은 아닌 듯한 존재, 과일의 형상을 했으나 동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덩어리 등을 통해 기존 누드화의 전통을 깨는 동시에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의 생명력을 상상한다. 한선우의 <통로>(2024)와 <에코>(2024)는 동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전형적인 도상들을 어색하고 생경하게 사용한다. 전설이나 민담에 등장하는 초현실적인 서사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뿐만 아니라, 마치 동양적인 것을 오해하여 차용한 서구 문화처럼 동양적 요소들이 자리를 잘못 찾은 듯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점에서 기이하다. 이 기이한 풍경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었을 경험을 흔적으로 남긴다. 이빈소연의 작품 또한 허구가 뒤섞인 서사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을 건드린다.

이들 작품은 초현실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암시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테면 오늘날 동시대 문학과 미술에서 SF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그간 배제되어 온 여성, 퀴어, 장애인, 동물, 식물 등 소수자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현실이나 가상과 실재의 뒤섞임을 다루는 작업들은 변화한 기술의 상황과 그로 인한 미디어의 문제에 그 뿌리를 둔다.

그렇다면 <유영하는 세계>가 문제시하고자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오늘날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비논리와 비이성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됨을 우리는 쉽게 동의한다. 그러나, 그 추상적 언급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현실에서 허구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 현실'이라는 뭉뚱그려진 말 안에 담긴 문제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왜 동시대적 초현실주의를 호출하는가? 20세기 초현실주의가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에서 나타난 증상이라면, 과연 오늘날의 초현실주의는 무엇의 증상인가? 무엇이 환상이 뒤섞인 현실을 그리게 하였는지, 그 원인을 함께 볼 때 이들이 한낱 공허한 꿈이 아닌 현실을 사유하는 유류가 될 것이다.

